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경기방송지부

[성명서] 2020. 4. 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 Tel 031-210-0935

경기방송은 노동조합을 기망하지마라!

-일방적 폐업으로 길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굴욕감' 마저
-성실·신의 바탕 노사협의는 형식적으로.....호의 베푸는 척 노조 기망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경기방송은 엉뚱한 이유를 대며 회사 문을 닫았다.

5월 7일 해고일을 앞두고 벌이는 노사협의는 7차례 열렸지만, 노동조합은 사측의 무성의하고 거만한 행태에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측이 갑자기 지난 4월 27일 열린 6차 노사협의에서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제안했다. 무급휴직 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노조 측 변호사가 배석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무급휴직을 제시한 이유가 "회사 이미지 회복" 을 위한 거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노사협의가 회사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자리인가?

폐업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 을 주장하는 사측에 노조는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지난 20년간 도민의 사랑을 받았던 '경기방송' 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측이 더 잘 알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노조에 대한 기망을 넘어 망발 수준이다.

해고예고를 통보한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 줄 거냐는 노조의 질의에 "경력증명서를 떼줄 수 있다" 던 사측. 추가로 경비 및 청사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위해 1~2명의 채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경기방송 노조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조치인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넘게 방송전문직종에 종사하던 인사들에게 "굴욕감" 을 주기 위한 꼼수인지.

사측에 묻는다. 당신들이 FM99.9MHz를 사용할 새로운 사업자와 경기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사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마저도 권한이 없음을 인정했다. 더 이상 우리를 기망하지 마라.

사측은 또 오늘(28일) 공문을 통해 마치 선심이라도 베풀 듯 지난 7차 노사협의회에서 제시했던 “무급휴직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본급 100% 유급휴직”을 제안했다.
그동안 사측이 제시하던 희망퇴직금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제시한 이유가 뭔가? 고용유지 기간을 늘렸다는 데 만족하라는 건가? 노조에 혼란을 주고 싶었는가?
대다수가 가장인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다.

노사협의회가 사측의 명분쌓기용은 아니다.

사측은 진심으로 해고 회피를 원하는가?
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 구제를 받은 인력 일부에 대해 다시금 해고를 다투며 중노위에 불복을 신청했다. 사측이 말하는 노력이란 게 이건가? ‘부당해고’ 소송을 회피하고자 하는 허울좋은 명목 아닌가?

경기방송 노동조합은 그동안 경기방송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사측의 정리해고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굴욕뿐이다.

방송법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폐업하겠다던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를 방패삼아 회사의 잘못된 이미지를 순화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방송 근로자들은 사측의 볼모가 아니다.

2020. 4. 29.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